



같은 빛 향해 걸어온 청년들, 10년 결실 맺다

왼쪽부터 윤소현(기획자), 장가영, 김도경, 이기현, 김병관 시인



광주 청년 문학 공동체 '공통점' (대표 신혜아림)이 10년 활동의 결실을 담은 첫 동인시집 '우리는 같은 통점이 된다' (겉은사람刊)를 펴냈다.

공통점은 2015년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시작한 시 창작 모임으로, 문학을 기반으로 한 출판·전시·공연·연구·온라인 프로젝트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등단과 비등단, 중심과 지역의 구분을 넘는 문학을 지향하며 느슨하면서도 내밀한 연대식을 이어온 단체다.

'같은 통점(痛點)'을 나눈다는 뜻처럼 타인의 삶과 고통에 공감하고 문학을 통해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00년대생 시인·기획자로 구성된 이들은 시 창작과 연구를 넘어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

문학동인 '공통점' 첫 동인시집 '우리는 같은 통점이 된다'

90년대생 시인 8명

다섯 개 주제로 엮은 시·산문

올 하반기 서울·광주서

출간 기념 낭독회, 전시도

가고 있다.

시집에는 김도경·김병관·김조라·신혜아림·이기현·이서영·장가영·조운운 8명의 시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통점과 차이점 ▲1900년대생의 정체성과 경험 ▲서로에게 부치는 시 ▲비경험 세대로서의 5·18 ▲기후 환경 문제의식 다섯 개의 공동 주제로 시를 썼고, 각자의 산문 한 편을 더했다. 시집 기획은 윤소현 기획자가, 해설은 김원경 작가가 맡았다.

장가영의 '자조 모임' 속 '선부른 대답은 유해해지기 십상이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역시나 서글프다'는 구절은 공

통점의 태도를 상징한다. 구성원 모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언어를 오래 곱씹는 내향적 성향을 공유한다.

김원경 작가는 해설에서 "불완전한 고백과 머뭇거리는 말 걸기, 침묵은 모두 느슨한 연대를 향한 조심스러운 몸짓"이라며, 공통점의 연대는 "어긋남과 지연 속에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감각"이라고 설명했다.

표지에는 동인 조운운이 디자인한 공통점의 상징 '소라개'가 그려져 있다. 2018년 독립문예지 '공통점' 2호부터 사용돼 온 이미지로 눈물방울과 펼친 손바닥, 유연한 선분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감각하겠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시집 제목 역시 '우리는 문학으로 같은 통점이 된다'는 오랜 표어에서 비롯됐다.

뒤표지에는 공통점과 인연이 깊은 두 시인, 나희덕과 김소연의 추천사가 실렸다.

공통점 원년 멤버들의 은사이기도 한 나희덕 시인은 "시가 내준 질문과 숙제를 내려놓지 않는 학생들"이라며 "십 년 넘게 서로의 지옥과 고향을 읽어주며 그곳을 시의 한

한 정원으로 만들었다"고 밝혔고, 김소연 시인은 이 시집을 "두터운 과거를 되살려 미래를 경유해 현재로 되돌아오는 언어들의 집합"으로 평했다.

공통점은 2016년부터 독립문예지 '공통점'을 통권 5호까지 간행하고, '활자낭독공간', '마음 레코드의 기능상 요건' 등 작품집을 펴냈다. 2023년에는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시 낭독의 예술적 가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낭독시집 '활자낭독공간'은 2024년 문학나눔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소현 기획자는 "다 같이 오래도록 시를 쓰고 읽자던 약속이 변치 않은 것 같아 기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문학이라는 공통점 아래 다시 모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아림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흩어졌지만 서로의 문학과 마음을 읽어주는 소중한 동료들"이라며 "시집 출간을 기념해 올해 하반기 서울과 광주에서 낭독회와 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학동인 공통점의 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공통점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commonpoint.kr>)에서 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나무이발사=정네모 저자

이 책은 햇빛의 색이자 행복의 상징인 노란색과 성장을 품은 자연의 초록색을 사용해 작품의 따뜻한 메시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두의 마음에 스며든다. 또한 봄의 뱃꽃, 여름의 청량함, 가을의 단풍, 겨울의 벚석벼석함 등 변화무쌍한 자연의 모습이 가득 담겨 기분 좋은 활력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어쩌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식물들과 엉뚱한 고집을 가진 나무, 확고한 미의 철학을 가진 나무, 신나게 춤을 추다 가지는 영진 나무들 등 작가의 귀여운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창비·1만6천원



▲상상하는 뇌=애덤 지먼 지음, 이은경 옮김

영국 엑서터대 의과대 교수이자 신경과학자 애덤 지먼이 30여 년간 의식·기억·심상의 신경 기제를 연구하며 축적한 성과를 토대로, 인간 상상의 빛과 그림자를 신경과학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상상력으로 촉발되는 꿈, 의식과 심상의 관계, 창조의 과정부터 환각, 망상,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상상이 인간 사고와 지각을 어떻게 구성하고 왜곡하는지 정밀하게 추적한다. 이를 통해 상상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뇌가 세상을 직조하고 '나'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하고, 뇌과학·철학·예술을 넘나드는 사례와 실험으로 그 기원과 진화를 입체적으로 탐구한다. /흐름출판·2만2천원



▲노피플존=정이현 저자

이 책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세대와 계층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룬다. 소설 집의 문을 여는 '실례담 크루'는 살아오면서 겪은 실례의 경험들을 고백하는 '실례담 말하기 크루'에 가입한 삼십대 변호사이자 모임의 가장 '젊은이'를 맡고 있는 '나'의 이야기다. 사회적 위치가 확고한 중년의 기성세대들로 이루어진 모임원 사이에서 '나'는 근사한 실례담을 발표해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나'의 발표는 거듭 실례로 돌아가고 모멸과 패배감에 휩싸인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소설은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세대 간, 계층 간의 물이해를 서늘하게 포착한다. /문학동네·1만8천원



▲천절한 땅콩 호텔=임고을 글, 김규아 그림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펼치게 되는 뜻밖의 도전과 우정 이야기가 동화책으로 나왔다. '천절한 땅콩 호텔' 직원이라 씩씩해야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 탓에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사곤 하는 너츠, 2년 동안 호텔 방 안에 꼭꼭 숨어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미스터리한 손님 폴짝 씨. 둘은 모두가 휴가를 떠나 텅 빈 호텔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폴짝 씨는 왜 갑자기 방에서 나온 걸까. 둘은 어쩌다 땅콩산을 함께 오르게 됐을까. 서툰 존재들이 뜻밖의 모험을 통해 서로를 돕고 성장하는 과정을 사랑스럽게 그려낸다. /문학동네·1만2천원

삶의 결 따라 흐르는 시선, 시간 위 피어난 서정



김도희 첫 시집 '장미의 시간을 생각한다' 출간

김도희 작가의 첫 시집 '장미의 시간을 생각한다' (문학동네)가 출간됐다.

40여 년간 환경공학 분야에서 활동해온 작가는 예순이 넘어 시 창작을 시작했고, 2016년 '한강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이번 시집은 그가 펴낸 세 권의 수필집에 이어 선보이는 첫 시집이다.

작품에는 모과, 상사화, 짙레꽃, 익은 밤, 꽃무릇, 민들레, 참꽃 등 친숙한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이 다수 담겼다.

자연의 사소한 결에도 마음을 기울이며 삶의 기미를 포착해낸 시편들은 일상의 풍경을 섬세하게 비추는 시인의 시선을 보여준다.

'봄맞이'에서는 두릅, 머위, 냉이, 달래 등 봄

나물을 소재로 계절의 향과 생기를 정겹게 풀어냈다. 씹스럽고 새콤달콤한, 씹쓸하면서 달짝지근한, 향긋하고 깊고 개운한 등 리듬감 있는 언어로 생의 맛을 표현한다. 짧은 행마다 이어지는 반복과 운율은 독자로 하여금 봄의 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작품 '구두닥이'에서는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반질반질 광택 내는' 사람들의 손끝을, '갈 든 여자'에서는 '피가 튀어도 비린내가 튀어도 오롯이 맛을 살리는' 강인한 생의 단면을 그렸다. 화려한 수사 없이 일상 언어로 인간의 고단한 삶을 묵직하게 담았다.

'시간의 그림자'에서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유한한 시간 속 인간의 존재를 성찰한다.

시집 전반에 걸쳐 '시간'은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숙명적 주제로 반복 등장하며, 삶의 유한성과 존재의 고독을 함께 아우른다.

고재종 시인은 발문을 통해 "이 시집은 자연과 사람, 사회를 관찰하며 그 조화를 노래하고 모든 존재의 운명적 부조리 속 인간의 시간을 반추하고 있다"고 평했다.

박명숙 시인은 "탄생의 세월을 오가는 길 위의 서사와 서정을 담아, 삶의 비애를 순직하고 애뜻하게 그려낸 속 깊은 노작들"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